

# ‘밥 한 끼의 사랑’ 11만명과 나누다

목포 ‘사랑의 밥차’ 운영 4년

174회 11만5850명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1만1680명 참여 나눔문화 확산에 소통 공간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힘내세요.” 올 상반기 마지막 밥차가 열린 지난 25일 목포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3층. 점심 한끼를 먹기 위해 찾아온 어르신들 로 센터 안은 북적였다. 무더위에도 600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와 한끼 밥에 식사를 할 공간이 부족해 2차례로 나눠 점심이 제공됐다. 자원봉사자들도 쉴 새 없이 식판을 나르면서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떨어졌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매주 화요일, 따뜻한 점심 한 끼로 사랑을 전하는 목포 ‘사랑의 밥차’가 운영 4년여 만에 11만명을 넘는 지역어르신들 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급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도 1만명을 넘어섰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사랑의 밥차는



목포 ‘사랑의 밥차’가 운영된 지 4년여 만에 급식 수 11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소 역할 뿐 아니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74 회에 걸쳐 11만5850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했다.

그동안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목포 시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 목포시협의회 등 40개 단체, 1만1680명에 달한다. 이날도 목포시의회 의원 3명, 양목봉

사회글로리아 봉사단 등 60여명이 자원 봉사자로 나섰다.

3년이 넘도록 주말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정향숙씨는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어르신들이 식사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원은 “보람 있을 때는 그릇을 다 비울 때”라며 “이 더운 날씨에도 한 끼를 먹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솟는다”며 웃었다.

사랑의 밥차는 무료 점심 제공 장소이 기 전에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자주 만나 건강을 살피는 소통의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게 목포시 설명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밥차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흑한기(12월~2월)와 흑서기(8월)를 제외하고 연중 고정식 무료급식과 권역별 이동식으로 나눠 운영된다.

고정식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3층에서 매주 화요일에, 이동식은 권역별로 7개소를 돌아가며 매일 2차례 금요일에 열린다.

/글·사진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천연기념물 갯바위 보존·활용 위해 지질 교육·체험콘텐츠 개발 등 필요”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천연기념물 500호인 목포 갯바위(사진)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질 교육과 체험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30일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공개한 ‘목포 갯바위 보존처리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갯바위 주변 지형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 일부가 탈락됐고 주변 생물은 지난 2009년 조사 당시 서식했던 조상대(고동류, 따개비류), 중부(굴류), 하부(담치류) 중 담치류는 전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상 보행교 설치 후 해수의

영향이 저감된 현상 때문이라는 게 용역팀의 분석이다.

협력단은 특히 갯바위 절리면에 밀그늘 나무가 서식하면서 식물 뿌리에 의한 절리 현상과 기계적 풍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변 식생 제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균열 부위에 대한 점검과 경화 처리가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 풍화와 침식 과정을 겪은 점을 감안, 인위적인 보수보강 대신,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이용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용역팀은 향후 갯바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분야, 활용분야, 관리분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조선업 불황에도 목포항 물동량은 증가

수출차·모래 처리량 늘어

전년 동기보다 4.6% ↑

목포항의 상반기 물동량이 조선업 경기 부진에도, 수출자동차와 모래 처리량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상반기 목포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1192만t으로 전년 동기 1139만t보다 4.6% 증가했다. 특히 수출자동차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기간 수출자동차 처리물량은 25만 5425대로 전년 동기 17만682대로 52.2% 늘어났다.

이 중 환적자동차는 세월호 거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8만7901대를 처리, 전년

동기 2373대 대비 37배 증가했다. 반면, 기아 수출자동차는 16만7524대를 처리, 전년 동기 16만8309대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한 모래와 시멘트도 물동량이 증가했다. 모래와 시멘트는 각각 62만4000t, 45만3000t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41.4%, 7.9% 증가했다.

철재는 조선업계의 선박수주량 급감으로 178만4000t을 처리하는데 그쳐 전년 같은기간(275만9000t)에 견줘 35.3% 가량 감소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수출자동차 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으로 더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지난해 열린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축제의 한 장면.

<목포시 제공>

##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3~6일 개최

‘2017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나흘간 차 안다나는 거리와 원도심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놀다 가련다’를 슬로건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 깊은 집’, ‘DJ67’, ‘시민아외곡’, ‘역사의 거리여행’, ‘쟁반 마당놀이’, ‘만인게 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미국·일본·캐나다·볼리비아 등 8개국 13개팀 해외초청작인 민속음악, 마임, 퍼포먼스 등도 선보인다. 국내 공연으로는

마당극, 풍물, 탈춤, 퓨전국악, 마임, 춤, 인형극, 퍼포먼스 등도 곁들여진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인 ‘로미오&줄리엣’도 펼쳐진다.

한편,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극단 깃들이 주관하고(세계마당아트 진흥회) 주최로 열리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국 14개 대표축제에도 지정된 바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국제축구센터 내 돐 구장에 설치된 물놀이장.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 국제축구센터 물놀이장 인기

목포 국제축구센터(이하 목포 FC)가 자체 운영 중인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평일의 경우 500~800명, 주말에는 1000명~1300명이 찾는 등 연일 북적대고 있다.

목포 FC측은 “전년도에 비해 20%가량 이용객이 늘어나 올해는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돐 구장에 풀장이 설치된 만큼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는 인조잔디가 바닥에 깔려 안전하다는 인식도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30~90cm 높이의 다양한 풀장을 갖춰 연령대별 물놀이가 가능한 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 FC 김삼일 팀장은 “안전 뿐 아니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FC 물놀이장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장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오후 5시까지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